

위기를 예방하는 나눔



김성훈/생명의 전화 상담부장

얼마전 아내가 믿는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불을 질러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나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그 부인의 신앙적 태도가 옳으나 그렇지 않으나의 문제도 아니다. 다만 그 가정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빌미가 되어 가족들이 상처를 입고, 점점 그 병이 깊어져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방화했던 그 남편이 방송 기자의 질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러했노라며

얼굴을 떨구는 모습을 보며 부인되는 사람의 행동이 미루어 짐작이 가 남편을 측은히 여기게도 되었으나, 자신의 가정 문제로 여러 사람을 살상했으며 또 그 가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 그래 고작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라니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이 글이 읽혀질 때 쯤에 혹 휴거되어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휴거되지 않아 더 절망하고 더 깊은 허탈감에 빠져 그 고통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이들이 너무나 많을 것에 답답한 생각이 든다. 도대체 휴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등지고 직장도 버리고 지금까지의 소중했던 수많은 것들을 쉽게 내팽개쳐 버릴 수 있을까. 몇달동안 온나라를 떠들썩거리게 하여 그 때문에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재삼 살피볼 수 있게도 되었지만, 그래서 더욱 제3자인 타인들의 생각에는 당사자인 그들이 과연 순수한 신앙의 열정만으로 종말을 기다린 것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네들의 가족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부짖는 처절한 사랑의 모습을 보며, 그 사랑은 조금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이해하지 않고 방해만 하는 거처장스러운 존재로만 여기는 행동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아 전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요사이 종교와 신앙 문제로 시끌벅적하였으나 곰곰히 살펴보면, 단순한 종교나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 우리 가정의 허물어진 모습들이 종교나 신앙의 허울로 표출된 것이라 보여진다. 인간이 살아가며 많은 문제에 부딪칠 수 밖에 없고, 그속에서 갈등과 번민과 고통으로 신음하다.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버리기도 한다. 「절망」 이는 인간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 벗어날 수 없을 지경에 빠뜨리고 만다.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 있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으로 이끌어 용기를 찾게 해주고,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찾게하여, 그래서 다시 험난한 세상으로 뛰어들게 해줄 수 있어야겠다. 그 누군가 중 가장 먼저인 대상이 가족이다. 가

족이야말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편안히 받아줄 수 있는, 아니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한 가족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하여 더욱 심한 절망에 빠진 이들의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그 대안 중 하나가 신앙인 것이다. 어떤 종교건 사랑을 빠뜨린 종교는 없다. 사랑이 곧 종교의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모두다 무관심한 세상에 사랑은 그야말로 희망의 생수인 것이다. 당연히 그 종교에 도취되고 깊게 관계있게 되는 것이리라. 살면서 느끼는 감상 중에 가장 힘든 것이 혼자라는, 혼자일 수 밖에 없다는 고독, 소외감이다.

어떤 어려운 경우든 간에 그것은 갑자기 다가온다. 어느날 갑자기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힘들고 아픈 절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란 없는 것이다. 얼마전부터 예견되어온 것들이다. 오래전부터 그러한 일이 있을 징후들이 보였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내가 내 문제에 부딪칠 길 두려워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되려나 하며 막연한 기대로 머무르게 하였고, 용단을 내려 과감히 손해볼 것은 손해봐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상황이 아까와 미적미적 미루어 온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가 아니란 것이다.

여하튼 어느날 갑자기 닥친 곤경에 빠져 당황하고 답답해하고 막막하고 그리고 후회하게 된다. '아 그 때 진즉'이 연발되지만 이미 물은 엽질러졌으니 소용이 없다. 괜스레 짜증이 나고, 주위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그때 좀 관심을 갖

“
 우리 가정에서는
 실수나 약점이나 허점이나
 어떠한 잘못도 이해되고,
 용서되고, 감싸주어,
 위로하고, 더 나아가 그
 빛나간 뒤통을 서로가
 나누어 질 줄 알아야겠다.
 나누는 것은 「있을 때」 하는
 행동은 아니다.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해 나눌 것
 있겠는가마는 바로 나눌
 것 없을 때 나눌 수 있다.
 ”

고 조금만 도와주었던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잘잘못만을 따지고 든다. 그것은 이미 나도 알고 있어 후회하고 반성하는 중이니 수긍하고, 나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로 받아들이면 될 터이다. 속에서 치밀어 올라와 딱딱거리게 되고 정도가 지나치면 언성이 높아져, 「서로를 위하여」라는 본질은 잊고 돌아서게 된다.

아, 그들과 진정 나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한숨이 나온다. 결국 나 혼자 자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옛날부터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라는 것이 느껴진다. 정말 그렇다. 내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가족, 친지, 친구, 이웃, 동료들-속에서도 언제나 외로운 존재였음을 느낀다. 외롭고 소외감에 몸서리쳐진다.

이러한 도식들을 우리는 흔히 대하게 된다. 빈번이 문제가 되는 청소년 문제

에서, 빛나간 사랑으로 변민하는 20대의 문제에서, 밖으로만 도는 남편,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우는 가정문제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거리로 쫓겨나온 모습에서 이러한 것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당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더한 관심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러한 풀기 어렵고, 헤쳐나가기 힘든 일들에 당당히 맞을 힘이 생겨나기 때문이리라. 그런대도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을 줄을 모른다.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나 지금의 결과도 그들의 몫이라는 것에도 이의가 없을 듯 하지만 실상 그러한 결과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조그만 사회를, 나아가서는 커다란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음인데도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서로를 힐난하기에 급급하다.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던 그 문제 자체가 서로에게 큰 짐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불속에 던져진 화약처럼 되고말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두를 상하게 만든다. 반드시 그렇다.

우리 가정에서는 실수나 약점이나 허점이나 어떠한 잘못도 이해되고, 용서되고, 감싸주어 위로하고, 더 나아가 그 빛나간 뒤통을 서로가 나누어 질 줄 알아야겠다. 나누는 것은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니다.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해 나눌 것 있겠는가마는 바로 나눌 것 없을 때 나눌 수 있다. 이 나누는 작업은 반대로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위기에 찬 우리 가정과 사회를 바로잡는 것은 마구 나누는 일뿐이다. †